

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그랜드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대표원장 이장섭

Mobile, 010-4652-7327
Tel, 063-717-4444 Fax, 063-274-4445
E-mail, leewww2@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위팔림로 1614(상림동 60)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2025년 2월 20일(목) 제 3039호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공사 기공식 19일 군산 사정동 특설무대에서 열린 군산 전북대학교병원 건립공사 기공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신영대 국회의원, 문승우 도의장, 강임준 군산시장, 양오봉 전북대총장,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시삽을 하며 기공식을 축하하고 있다.(관련기사 6면) <사진=전북도>

전북특별법 실행 ‘원년’...특례 추진 가속

131개 조문·75개 특례 중 53개 즉시 시행... 22개 특례 추진 지구·특구 지정, 조례 개정, 전문가 세미나 등 실행력 강화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통과 후 추가 특례 발굴 등 후속 조치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성과평가 체계 마련...제도 효과성 점검

전북자치도가 2025년을 전북특별법의 실질적 실행 원년으로 삼고, 특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시행된 전북특별법의 131개 조문과 75개 특례 중, 실행 준비가 완료된 53개 특례를 본격 추진하고 2025년 이후 시행 목표인 22개 특례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19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특례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특례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즉시 시행된 53개 특례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이미 후보지구 선정

을 마친 지구·특구 지정 특례는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농생명산업지구의 경우 올해 6월경 ▲남원 ECO 스마트팜산업지구 ▲진안 홍삼 한방산업지구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 산업지구 등 3곳의 지구 지정을 목표로 환경부와 전라환경영향평가 등을 협의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농업생산업에 그쳤던 지역을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과 기업 집적화를 통해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을 구축한 지역 농업분야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례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컨설팅과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매

월 추진 점검회의를 열어 연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추가 특례를 대상으로 기본구상영역을 진행하고 신규 특례 발굴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례 및 규제 완화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지방분권·자치권 강화 ▲생명경제 거점성장 ▲도민 행복 증진 등 3대 목표와 30개 세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2025년은 전북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는 해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에 집중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관 기자

임실, ‘K-치즈’ 중심지로... 동부권 식품산업 자문단 가동

도·전문가·임실군... ‘치즈·낙농 산업지구 조성’ 모색
지속가능 낙농업 모델 구축...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프리미엄 유제품 산업 키워 글로벌 경쟁력 확보 목표

전북자치도가 임실 치즈·낙농 산업을 고도화하고 동부권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일 ‘찾아가는 동부권 식품산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동부권 식품산업 자문단’ 회의는 전북 동부권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현 가능성과 완성도가 높은 정책 사업을 발굴하는 전문가 협의체로, 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임실 회의는 진안 홍삼, 장수 레드푸드, 남원 추어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됐다. 회의는 전북연구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한국저지종연구회, 국립축산과학원 등 식품·낙농산업 분야 전문가들과 전북자치도 및

임실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임실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치즈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아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프리미엄 유제품 산업 육성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저지종 젖소를 활용한 고품질 치즈 및 유제품 생산,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 지속가능한 낙농업 모델 구축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낙농업 차별화 전략, 지역 특산 치즈 브랜드화,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펼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임

실N치즈 브랜드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전북을 대한민국 치즈·낙농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백승하 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이번 자문단 회의는 단순한 논의의 자리가 아니라, 치즈·낙농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임실의 우수한 자원을 바탕으로 전북을 치즈와 낙농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찾아가는 동부권 식품산업 자문단’ 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논의와 실행력을 확보해, 동부권 식품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전북, 핀테크 스타트업 모집...금융혁신 거점 도약

핀테크 창업·스타트업 대상...최대 3천5백만원 자금 지원
우리금융그룹 디노랩 연계로 투자유치·스케일업 지원
핀테크 기업 집적화 추진...금융혁신 중심지 도약

전북자치도가 핀테크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아이디어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핀테크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며, 도의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3천500만원의 사업과 지원금과 창업공간 지원, 역량 강화교육, 핀테크 유관기관 등과 네트워킹, 전문가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도는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금융혁신 스타트업의 발굴과 함께 도의 기업의 분사 이전을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우리금융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디노랩’과 연계해 투자유치 지원과 맞춤형 스케일업을 더욱 강화한다.

‘디노랩(DINNOlab, Digital Innovation Lab)’은 우리금융그룹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으로, 지난해 6월 전북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창업생태계 혁신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참여기업들은 금융 네트워크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추가 투자유치 및 비즈니스 확장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핀테크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핀테크 기업 집적화를 추진해 디지털 금융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핀

테크육성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며 입주기업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투자유치나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사업화 지원과 투자유치 연계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0일까지이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event.jbci.or.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063-220-8941/qwer6958@ccei.kr)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디지털 금융산업을 선도하는 금융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업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핀테크 스타트업이 전북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당신이 사는 전북, 우리가 담아내는 이야기”

전북의 시선, 전북타임스와 함께

https://www.jeonbuktimes.co.kr 대표전화 063-282-9601 팩스 063-282-9604

JBT

전북타임스신문

전북투어패스, 새로운 상품 구성…프리미엄권 출시

카셰어링 할인부터 트립닷컴·클룩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까지…관광객 맞춤형 혜택 제공

전북자치도가 올해 한층 업그레이드 된 전북투어패스를 선보인다.

지난해 전북투어패스는 12만 매 이상 판매되며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올해는 새로운 상품 구성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더욱 많은 관광객이 전북을 찾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기존 통합이용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프리미엄권’을 새롭게 출시한다. 기존 이용권은 1만원 이하의 시설 위주로 구성돼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체험시설을 즐기기에는 제한이 있었다.

이에 따라 1~3만 원대의 체험시설과

지 포함한 프리미엄권을 도입해 이용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이를 통해 왕궁포 레스트, 상하농원, 액션하우스 등 인기 관광지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여행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트립닷컴, 클룩, KKDAY 등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과 협업해 전북투어패스를 해외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할인쿠폰 제공 등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해 전북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적극 홍보하고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촉진할 계획이다.

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북투어패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캐릭터 인형탈 제작 및 다양한 굿즈(인형, 키링 등) 출시를 추진하고, 블로그 체험단 운영, 여행주간 프로모션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관광객들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 관광의 강점을 살린 특화된 투어패스 상품을 개발·연계하고 투어패스 판매도 늘려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류시간 연장과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김관영 도지사,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강조

2월 소통의 날 행사서 직원들과 도정운영 추진상황 소통

김관영 도지사는 19일 도청에서 열린 2월 소통의 날 행사에서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도정의 성공을 위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9백여명의 도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피켓 퍼포먼스와 김지사의 소통 시간이 이어졌으며, 이현주 연세대 미래융합연구원 연구교수가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갑질예방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의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상처받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라며, “이것이 바로 의사소통의 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마다 의사소통 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이해하고 조정하는 것이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좋은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감정을 존중하는 일지형이라며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도내 196명 기초의원, 올림픽 유치 홍보대사로…지역사회 결집

전북도, 시군의회와 힘 모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전국 홍보활동 총력전

전북자치도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도내 시군의회와 힘을 모아 총력전에 나선다.

도는 19일 도내 14개 시군의회 의원 총 196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시군의회 홍보협력단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는 올림픽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하나로 결집해 실질적인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홍보협력단을 구성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협력단”은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시군홍보협력 단장으로 임명됐으며,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지역 홍보위원장으로 참여한다.

각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해 전북이 대한민국 대표 후보 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홍보대사로 임명된 시군의회 의원들은 ▲전국적인 유치 홍보 활동 ▲도민 공감대 형성 ▲전북자치도의 개최지 선정 촉구 결의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는 전북이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올림픽이 전북에 개최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 문화,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유치 가능성을 극대화하려면 시군의회와 도민이 하나가 돼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홍보대사들과 함께 중앙정부 설득, 국내 스포츠 네트워크 활용, 대국민 홍보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며 올림픽 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진행 상황 점검

道, 지난 해 45명 지역사회서 자립 성과 거둬…향후 도내 전 시군 확대 계획

전북자치도는 19일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과 함께 군산을 방문해 전국적으로 모범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성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2022년부터 추진하는 정책이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가 참여하고 있다.

향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발굴해 1:1 전담 멘토를 매칭하고 자립

성공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지원 서비스는 ▲공공임대주택 연계 및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일자리·자립정착금 등 소득보장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보건의료 및 긴급 상황 대응 체계 구축 등이다.

도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8억을 투입했으며, 838명의 자립 대상자를 발굴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45명이 공공주택 연계 및 재가서비스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20억을 추가 투입해 104명의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

정책실장은 “장애인 복지 정책 중에서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수미 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시범사업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적인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자립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이명연 도의원, 어린이집연합회서 감사패 받아

도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증진 위한 의정활동 인정

전북자치도의회 이명연 부의장(전주 10선거구)이 지난 18일 도의회 의원총회실에서 진행된 전북자치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연합회 ‘2025년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그동안 도의회에서의 의정 활동을 통해 전북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연합회 소속 보육 교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연합회 측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 부의장은 이전에도 전북만의 지속 가능한 보육지원정책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실시하는 등 도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이 부의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최근 장기적인 저출생으로 재원아동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지원 기준이 충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보육환경 변화와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관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이명연 부의장이 지난 18일 도의회 의원총회실에서 진행된 전북자치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연합회 ‘2025년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위험해요!

✓

길을 건널 때에는 주변 좌·우를 살피며 건너야해용

- 이때 스마트폰은 넣어두고, 원손을 들어 길을 건너용

- 스마트폰을 보면서 건너면 주변 상황을 보기가 힘들어용

✓

무단횡단은 안돼용

- 신호등이 녹색불일때 건너갈수 있어용

✓

건너지 전 신호등의 녹색불이 깜박이면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돼용

✓

건너는 동안 신호등의 녹색불이 깜박이면 서둘러 횡단보도를 건너야해용

제1회 전북 CEO 지식향연...경영 혁신·교류의 장

중소기업 CEO·소상공인 400명 참석, ‘트렌드 코리아 2025’ 강연...최신 경영 트렌드 공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과 협력의 장 마련...도, 미래 첨단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전북자치도는 19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2025년 제1회 CEO 지식향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중소기업 CEO, 소상공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CEO 지식향연’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 CEO와 소상공인들을 초청해 경영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기업 간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행사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전주상공회의소, 메인비즈협회전북연합회, 전북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한다.

이날 강연에서는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이자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의 공동 저자인 전미영 교수가 ‘트렌드 코리아 2025’를 주제로 최신 경영 트렌드와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을 심도 깊게 설명하며 참가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CEO 지식향연은 단순한 강연에



전북자치도는 19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2025년 제1회 CEO 지식향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의 장이 됐다. 참가자들은 변화하는 소비 시장에 대응하는 방향성과 맞춤형 소비, 친환경적

가치 등 협업을 통한 성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중에는 2036 하계 올림픽 유치에 대한 열망을 담은 ‘올림픽 유치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도는 이차전지, 방산,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첨단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올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도 혁신, 판로 개척,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영환경을 안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와 신용보증재단은 앞으로도 CEO 지식향연과 같은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확대해 기업인들이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준호 기자

전북 건설공사 실적 55%감소...5년간 최대 폭

2024년 종합건설 실적 3조 8,111억 원...감소세 지속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가 ‘합건설 회원사 792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도 건설공사 실적’을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신고받은 결과 767개사가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4년 종합건설 기성 실적 신고액은 3조 8,111억원으로 전년 대비 5.5%(2,210억원) 감소한 금액으로 최근 5년간 실적신고액 중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다.

또한, 미신고 업체수도 전년도 18개사에서 25개사로 7개사가 증가했

고, 종합건설업 손익분기점 50억미만 업체수도 전년도 515개사에서 518개사로 3개사(0.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4년도 도내 실적 1위는 공공 및 민간건설 수주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전년도 5위 (주)군장종합건설이 차지했고, 전년도 4위였던 (주)금도건설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주)신성건설이 한 단계 내려와 3위를 기록했으며, (주)제일건설이 4위, 계성건설(주)이 5위를 차지했다.

/최준호 기자

전건협 전북, 지난해 실적신고 접수...전년비 3.6%감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 전북특자도회)는 지난 18일 ‘2024년도 전문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를 접수 마감한 결과 도내 3,063개 전문건설업체가 접수했으며 기성실적 신고 총액은 전년 대비 3.6% 감소한 2조 7,375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분장과 전정으로 불안한 국제세제로 인한 원자재 수급불안과 물가상승 그리고 국제금리인상의 악재까지 더해져 국내 건설경기는 극심한 침체상황을 겪고

있는데다가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허용으로 인한 수주불균형으로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전반적인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도내 전문건설업체 중 기성신고액 1위는 529억원을 신고한 토성토건(주)(대표 김경중)이 차지했고 (주)유림개발(대표 최영진) 이 432억으로 2위를, 반석중공업(주)(대표 김범중)이 3위(426억원), (유)삼신기업(대표 이종화)이 416억으로 4위, (주)조풍건설(대표 문창)이 5위(318억)를 차지했다.

/최준호 기자

국민연금공단, 차세대 해외투자 통합시스템 오픈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기금운용본부는 해외주식·채권, 멀티에셋 등 자산군별로 흩어져 있던 주문관리 및 포트폴리오관리 업무를 일괄처리할 수 있는 해외투자 통합시스템을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투자 통합시스템 도입으로 해외자산의 주문·포트폴리오 관리가 일원화되고, 클라우드 기반 전용망을 통해 국내 본사와 해외사무소 간 동일한 운

용 환경이 조성됐다. 기존에는 자산군별로 개별 시스템을 사용해 관리가 복잡했고, 해외사무소는 국내 서버를 우회해야 해 속도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섐으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신속한 투자 의사 결정이 가능해져 기금 수

익률 제고가 기대된다.

아울러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기금 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업무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였다.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를 자동으로 요약·번역하고, 다양한 시장 데이터를 한눈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시간 단축뿐 아니라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도 가능해졌다.

1,100조 원 자산 규모에 걸맞게 리스크관리도 더욱 강화됐다. 수취에 근거별로 개별 시스템을 사용해 관리가 복잡했고, 해외사무소는 국내 서버를 우회해야 해 속도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섐으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신속한 투자 의사 결정이 가능해져 기금 수

/최준호 기자



새만금청, 원광대와 세계농업대학 설립 전략토론회 열어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와 함께 19일 새만금 세계농업대학 설립을 위한 전략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원광대학교는 교육부 주관의 2024년도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선정돼 5년간 최대 2,545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원광대학교는 글로벌대학 실행계획에 따라 세계농업대학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할 계획이다.

새만금 세계농업대학은 세계 최초로 농업대학과 연구기관이 결합해 운영하

는 네덜란드의 와게닝겐 대학을 모범으로 삼아 ‘농생명 산업의 글로벌 거점 캠퍼스’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광대는 와게닝겐 대학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 교육혁신, 산학일체화, 글로벌 인재 양성 등으로 2028년까지 새만금 세계농업대학 설립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원광대학교는 새만금 3대 허브(관광·마이스(MICE), 글로벌 푸드 허브, 첨단전략산업)와 협력해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특히 관광·마이스(MICE) 산업과 연계해 새만금 스마트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연구·실증·생산 기능의 클러스터(협력 지구)를 형성해 글로벌 푸드허브와 첨단전략산업의 가치를 높일 전망이다.

/최준호 기자

■ [알림]

대림석유(주)(대표이사 김정태) 직영 3공단주유소 오픈식

▲일 시 : 2025. 2. 22(토) 오후 2시

▲장 소 : 3공단주유소(완주산업단지)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42

▲문 의 : 대림석유(주) T.063)261-5151

도내 주요 지방도 확·포장 사업 본격화...상반기 조기 발주

21개 지구 대상 확·포장 사업 조기 추진, 지역 간선 도로망 강화...선금기 기성금 확대 지급 등 민생안전 도모

전북자치도는 도내 주요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위해 올해 21개 지구(총 64.89km)에 4백여억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상반기 조기 발주를 통해 공사진행을 앞당기고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일차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2020년 ‘제3차 도로건설·관리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

고 24개 지구(총 85.46km)를 단기사업으로 확정된 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2천826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다.

올해는 21개 지구에 대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며 이 중 8개 공사지구는 이달 내 조기 발주해 상반기 내 선금금 및 기성금 확대 지급 등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지구(8개) 중 지난 지난해 준공된

화산~경전 1공구(L=2.9km)에 이어 2공구(L=0.37km)를 1월 초 신규 착공했으며 제4산단~하나로 지방도(L=1.24km)는 연내 준공 예정으로 개통 시 익산 제4산업단지 주변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황산~금산사IC(3공구) 외 4개지구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고창~내장IC(3공구) 외 7개지구 토지 보상 진행 등 차

질 없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 추진을 통해 도로 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간선도로와 연계한 지방도 확·포장률을 개선해 물류비 절감, 관광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신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전북, 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양수산 시책 설명회 개최...사업 계획 공유

작년 해양수산 주요 성과 점검, 올해 신규 시책 소개...지속 가능 수산업 육성 창업·투자 활성화 지원 확대

전북자치도는 해양수산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어업인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해양수산 시책설명회’를 19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도와 시군 관계자, 어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2024년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신규 시책 및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2024년에는 ▲지역특화 수산물 육성 기반 마련 ▲글로벌 물류거점 항만 육성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등을 핵심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중앙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선정 성과를 거뒀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발 triển 방향을 재점검하고, 2025년 신규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어, 2025년에는 지속 가능한 수산



전북자치도는 해양수산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어업인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해양수산 시책설명회’를 19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시책으로는 ▲전북형 청년어촌정착 지원 ▲대체 양식품종 시범양식 ▲토하 전처리·유통시설 기반 조성

이 포함되며, 지역 어업인들이 직접 참

여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센터의 주요 사업과 지원 프로그램도 소개됐다. 해양수산분야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맞춤형 창업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투자 연계 프로그램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어업인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설명회에서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드백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시책설명회는 어업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양수산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3월~4월까지 신청 접수

온라인 3월·읍면동서 4월 방문 접수...임업인 소득 안정 위한 직불금, 자격 조건 사전 확인

전북자치도는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 접수를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임업 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도에 따르면, 2024년 임업 직불금은 전북자치도 내 1천894명의 임업인에게 총 43억 1천133만원이 지급됐다. 이 중

면적 직불금 27억5천650만원, 육림업 직불금 10억 561만원, 겸업 직불금 4억5천991만원, 소규모 임가 직불금 3천800만원이 포함된다.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자격이 주어진다.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은 산림경

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이 1개월 앞당겨지고, 1개월 연장돼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산림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 운영)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황산국 도 산림지원과장은 “관내 임업인들께서 미리 자격조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 직불금을 신청해주시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설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도교육청, 교사 행정업무 줄인다·교육활동 전념 강화

초등학교 50개교 교무업무 지원 교사·정보업무 디지털 튜터 250명 배치... 학생 중심·교육활동 중심 학교 환경 조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지원 업무를 강화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7월 학교업무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하고, 173명의 인력을 배치해 교사가 가장 희망하는 업무 11개를 포함, 총 22개의 업무를 지원해 왔다. 주요 지원 업무는 ▲기간제교사 채용

지원 ▲방과후 돌봄강사 지원 ▲특별실(도서관, 과학실) 정리 ▲교과서 수급, 정산, 재고관리 ▲전북에듀페이 업무 ▲체험학습 프로그램 및 인력풀 구성 등이 있다. 그 결과 학교업무지원센터를 통해 업무 지원을 받은 교사들의 만족도가 82.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는 디지털 튜터 채용 등 인력 채용 지원 업무에 대해 기존 서류심사는

물론이고 면접심사도 지원한다.

유치원 자원봉사자 위촉 지원과 교사 맞춤형 업무 지원 등 올해 새로 지원하는 업무도 있다. 전북교육청은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초등학교 50개교에 교무업무 지원 교사를 배치해 교무기획, 연구 장학 등 교무업무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보업무 경감을 위한 디지털 튜터도 지난해보다 50명 늘어난 250명을 배치하고, 전북 유·초·중·고 학교

업무 플랫폼의 서식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은 “학교가 학생 중심, 교육활동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교업무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새로운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총·글로벌호텔, 따뜻한 나눔

초등학생 70명 초청... 무료 점심·선물·공연 관람 기회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와 글로벌호텔 전주(대표 노종호)는 지난 19일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일환으로 도내 초등학생 7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점심 식사와 학용품 선물 제공 및 공연 관람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와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으며, 전북교총과 글로벌호텔 전주가 협력해 진행했다. 행사에 초청된 학생들은 호텔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따뜻한 나눔을 경험했으며, 전북교총에서 준비

한 로봇댄스 문화공연을 관람했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방학을 맞아 학교 급식이 중단된 상황에서 학생들이 따뜻한 식사와 함께 문화적 감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정서적·문화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학생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전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및 기업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나눔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민 기자

전북도, 유학생 정착·지원 위해 한마음으로 뭉쳤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전북 외국인 유학생 협의회' 개최·도내 12개 대학 맞손 지역·대학 간 협력

'전북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시대'를 맞아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유학생 정착 지원을 위해 도내 12개 대학과 머리를 맞댔다. 외국인 정착지원 전담기관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전북 외국인 유학생 협의회'를 19일 개최해 유학생 정착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와 공동 사업을 논의했다. 전북 지역 12개 대학이 참여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정주 유도'와 '협력'이 강조됐는데, 이러한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북 탐방 프로그램 ▲취업 역량강화 캠프 ▲행정서비스 지원

과 같은 사업 주제가 논의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자치도 교육협력추진단과 창업지원과에서도 참석해 지역·대학 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비수도권 최초로 전북에 세워지는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보도 공유했다. 김대식 원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은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북을 더욱 유학생 친화적인 지역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19일 '전북 외국인 유학생 협의회'를 개최했다

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 4단계 BK21 사업 우수 연구 성과 공유

지난 2020년부터 4단계 BK21사업으로 핵심 학문 분야 연구 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에 힘쓰고 있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지난 한해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JBNU BK21 FOUR 성과포럼&연구 전시회'를 지난 18일 진수당 글로벌홀에서 개최했다.

전북대는 4단계 BK21 사업을 통해 '창의적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혁신선도 글로벌 대학원'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17개 교육연구단(팀)이 참여하여 글로벌 Top100 연구 경쟁력 확보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생들의 교육·연구·산학협력·국제화 역량 향상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번 성과포럼은 성지은 과학기술정



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철우 한국공학대학교 부총장, 카이스트 배홍상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 그리고 대학원 혁신지원 사업 주요 성과 발표 및 향후 대학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어졌다. /최성민 기자

이병철 의원, ‘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발의

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 설치·구성...심의·자문 역할 담당 근거 마련 “안전·효율적인 폐교재산 활용 방안 촉진 하겠다”

전북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시 제7)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 지난 18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폐교

재산 활용계획 수립 ▲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폐교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이 의원은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와 신도시 중심으로의 도시개발은 폐교 증가를 가속화시켰고, 이에 따른 폐교 활용 및 개선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며 “도내 폐교재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교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에 열리는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관 기자

전북도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 방안 마련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9일 전주공업고

등학교에서 직업계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 기업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

영 방안 및 성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공청회에서는 전북교육청 공용선 장학관(직업교육담당)의 '2025년 직업계

고 현장실습 운영(안)'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회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참석자 들은 ▲현장실습 운영 기간 및

시기 ▲선도기업 기준 등에 대한 현장실습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공청회 내용을 토

대로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들을 위한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최성민 기자

생활속 에너지 절약 방법

컴퓨터를 10분 이상 미사용시 **절전모드** 사용

실내온도를 3도 낮게 설정하면 **약 20% 절전**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을 사용하면 최고 **45% 절전**

전구식 형광등으로 교체하면 **70% 절전**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아두기

양치질, 면도할땐 물 잠궜서 **38% 에너지 절전**

익산시, 2025년도 전기차 보급 사업 시작

익산시는 137억 원을 투입해 올해 전기 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시는 전기자동차 544대 보급을 목표로 승용 251대, 화물 285대, 승합 8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20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구배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3개월 이상 익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익산시민과 익산시 소재 법인이자.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대폭 확대 됐다. 우선 청년층의 경우 올해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9~34세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때 국비 20%와 도비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국비를 최대 300만 원(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 300만 원) 지원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이에 더해 모든 다자녀 가구에 도비 5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농업인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국비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의 경우 대형 차량은 기존 7,140만 원에서 올해 최대 1억 1,500만 원까지도 지원이 확대됐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을 바꾸는 아이디어 시민 정책제안 공모 접수

정읍시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시민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 의견을 시장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주민 생활 편익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모 기간은 내달 18일까지이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채택된 제안은 정읍시의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실제 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모 제는 ▲생활 속 개선이 필요한 정책 ▲생활인구 유입·다자녀 가구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정읍형 관광·먹거리·축제 활성화 ▲기타 정읍 발전을 위한 창의적 정책 등 정읍 발전과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응모 방법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우수 제안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되며 심사 결과는 5월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대학로 주차난 해소...원광대 주차장 무료 개방

익산시와 원광대학교가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익산시는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광 담당 주차장이 시민들에게 전면 무료로 개방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개방으로 시민들은 남문주차장 100면을 평일·주말·공휴일 24시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익산시와 원광대학교는 지난해 7월 지역 체육시설 주변 확대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원광대 시민개방형 체육시설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원광대는 지난해 9월부터 동일한 진출입로를 이용하는 경우 교내 주차장을 평일 저녁 3시간(6~9시), 주말·공휴일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전북대병원, 의료허브 ‘첫 걸음’

2028년 10월 개원 목표 3월 착공...사업비 3329억 원 투입·12층 500병상 규모

군산전북대학교병원이 첫삽과 함께 서해안 의료 허브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군산시 사정동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부지에서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기공식을 성료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기공식에는 전북대병원 양종철 병원장과 이사장인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 신영대 국회의원, 전북특자도 김관영 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등을 비롯한 3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축하했다.

2009년 새만금지역 분원의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시작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은 서해안 시대 최고 의료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북대병원의 도전과 군산시의 삼급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희망이 어우러지면서 급물살을 탔으며 2013년 1월 교육부로부터 건립사업 승인을 받았다.

환경문제와 부지변경, 건축자재비 상승에 따른 부담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지만 전북대병원과 지역 주민, 정치권, 지자체,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



전북대학교병원은 지난 19일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기공식을 성료했다

력으로 난관을 극복해왔다.

특히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긴밀한 협력, 정치권의 지지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었고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문제를 해결하며 2028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하게 됐다.

신설되는 군산전북대병원은 총사업비 3329억원(국비 996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10층의 500병상 규모의 종합의료시설로 심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응급의료센터, 스마트헬스케어센터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의

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단순 질환자가 아닌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특화된 전문진료를 통해 군산권역을 넘어 충남 서남부권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군산전북대병원은 의료시설의 확장을 넘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의 초석을 마련하고 국가의료체계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촘촘한 복지 안전망 위기가구 지킨다

민간 협력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인공지능우편 서비스 활용 고독사 예방 시스템 도입

익산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간 협력을 확대하고 AI·우편 서비스를 활용한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 협력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익산시는 위기가구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우리 마을 행복복지킴이' 사업을 통해 3670지구 국제로타리클럽 익산지역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통

해 ▲저소득층 주택 신축(러브하우스) ▲수해 피해 가구 겨울 이불 지원 ▲다자녀 가정을 위한 불박이장·2층 침대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이 추진됐다.

◆AI·우편 서비스 활용한 고독사 예방 시스템 도입. 시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부 확인 서비스와 우체국 방문 서비스를 도입한다. 시는 읍·면·동장 책임제를 중심으로 복지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과 독거노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글로벌 케어콜'은 네이버의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를 활용한 자동 안부 확인 서비스로,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건강 상태와 생활 상황을

점검한다. 식사 여부나 수면의 질, 건강 상태 등 일상적 안부를 묻는 식이다.

'안부살림 우편서비스'는 우체국 집배원이 월 2회 사회적 고립가구를 방문해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마련한 생필품(물티슈, 마스크, 라면 등)을 전달하고,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행정과 협력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희 복지교육국장은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어르신 평생 살던 집에서 노후 보낸다

방문의료·요양·일상생활지원·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지원 제공... 5개 기관 협약 체결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온 집에서 편안 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읍시가 의료·돌봄 통합지원에 나섰다.

방문의료, 요양, 일상생활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며 이를 위해 5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20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재선정되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 경계선에 있는 75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통합지원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총 2억 3100만원(도비 7000만원 포함)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 사업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적 적용을 앞두고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정읍시는 전국 35개 지자체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통합지원서비스의 효과를 검증하고,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해 노인 돌봄의 선도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는 ▲탐가정의학과의원(방문의료서비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정읍지부(재활·운동 지원) ▲정읍주

거복지센터(주거환경 개선) ▲정읍시니어클럽(건강 맞춤식 제공) ▲다솜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 서비스)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기존 32개 개별 서비스를 포함해 총 4개 분야 37개 서비스로 확대해 어르신 200명에게 통합적인 돌봄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AIP)'를 실현하고 정읍형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서수농공단지 에너지관리시스템 사업 준공

28개 입주기업 연간 총 7% 에너지 절감 목표... 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에너지 자립화와 스마트 그린산업 조성을 위한 군산 농공단지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내달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농공단지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술도입 모델' 사업은 2023년 농식품부가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 사업에 선정된 군산시는 노후된 서수농공단지 에

너지 자립화와 스마트 그린산업 조성을 위한 군산 농공단지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내달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농공단지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술도입 모델' 사업은 2023년 농식품부가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 사업에 선정된 군산시는 노후된 서수농공단지 에

너지 관리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진단을 통해 절감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을 통해 한산 전원 구축 및 에너지 절감 전력 제어장치를 통해 연간 총 7%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연간 에너지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에너지 사용 절감을 통해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기술인력 교육 훈련기관 모집

구직자 실질적인 취업 기회 제공 · 기업 인력난 해소

군산시가 청·장년층의 취업문제와 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 '2025년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을 실시할 훈련기관을 모집한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은 청·장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기술교육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가계 소득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다.

훈련기관의 자격조건은 군산시 소재 고용노동부 인증 직업능력 개발기관이며, 모집 훈련과정은 5개 과정 내외로 용접, 건설기계, 전기설비, 전산 세무회계 등 인력 수요가 많고 취업 가능성이 높은 직종을 우선 선정해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오는 내달 6일까지 모집하며 내달 중 교육기관이 선정되면 각 기관은 과정별 20명 정도로 100여 명의 교육생을 모집·선발할 계획이다.

교육기관은 4~6개월 동안 직업 훈련을 진행하고 우선채용 협약을 맺은 관내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취업 연계를 도모할 예정이다.

시는 선정된 훈련기관에 1인당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고용노동부 고시)를 적용한 훈련비를 지급한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누리집www.gunsan.go.kr)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454-436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2025년 귀농귀촌 지원사업 대폭 확대

노후 주택 보수·주택 신축 설계비·농업 보조금 등 지원금 규모 확대

정읍시가 올해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며 농촌 정착의 부담을 줄인다.

이번 사업은 주택 수리비, 영농 정착 지원, 주택 신축 설계비 등을 포함해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실질적으로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원금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하의 세대주로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정읍시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귀촌인이다.

먼저 노후 주택 개보수를 위한 지원이 강화됐다. 세대당 최대 2000만원을 기준으로, 그중 50%를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창호·보일러 교체, 도배, 장판,

지붕 수리 등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돕는다.

농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65세 이하 귀농인은 세대당 2000만원(50% 보조), 2030 세대는 1500만원(100% 보조)을 받을 수 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해 주택 신축 설계비도 지원한다. 세대당 800만 원을 기준으로 50%를 보조하며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사업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외국인정책 실무협의회' 출범

익산시는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외국인정책 실무협의회'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외국인정책 실무협의회는 부서별로 추진 중인 외국인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된 회의체다.

시는 늘어나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민과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자 외국인정책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익산시 거주 외국인은 총 6,956명(등록외국인 6,395명, 외국국적동포 5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2월 말 기준

4,714명에서 1,681명 증가한 수치로 매년 10~20%씩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회의에는 강영석 부시장과 기획안전국장, 기획예산과장, 정책개발담당관, 사업 담당 계장 등 2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익산시 외국인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지역맞춤형 글로벌 인력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동력 확보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지역기반 외국인 네트워크 구축 등 4대 전략별 정책과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올해 익산시 외국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전국 자율상권사업 컨퍼런스 성료

군산에 전국의 지역 상권 창작자와 자율상권 사업담당자들이 군산에 모였다. 지난 19일 군산시 예인호텔 컨벤션홀에서 '전국 자율상권사업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의 상권 전문관리자, 자율상권구역 담당자, 동네상권 발전소 사업운영사, 자율상권기획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 최초 도시재생 회사인 군산시 지역관리회사(썬치)가 진행한 '군산 영화타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되었고, 오래된 상업 시장이던 영화타운의 변신 기획부터 운영까지의 과정을 통해 지역 상권 형성의 과정, 민간 주도 모델의 특징과 성과를 알아보고, 다른 상권에도 적용 가능한 전략을 모색했다.

자율상권사업은 지역상권별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라 본격 도입되었으며, 상인·건물주·주민이 협력해 골목상권 등의 활성화와 안정 성장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실제 경험과 모범 사례를 통해 자율상권의 기획·운영 현황과 성공 및 저해 요인 등을 논의하며, 상권 활성화 사례와 성공 비결, 자율상권사업의 발전 방향까지 함께 모색했다.

군산시는 지역창작자 육성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전국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군산에서 열리는 행사가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김제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열어

전북중소벤처기업청·전북테크노파크 등 도내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참석해 지원사업 설명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도내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과 함께 관내 중소기업의 지원사업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난 17일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에서 기업지원시책 설명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시와 더불어 전북중소벤처기업청,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지방조달청,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도내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지원사업 설명을 진행했으며 기업별 개별상담 및 정책상담 오픈채팅방이 운영이 이뤄져 행사의 내실을 다졌다.

설명회에 대한 기업인들의 관심도도 상당했는데, 당초 예상보다 많은 100여 명의 기업 대표 및 실무자가 참석해 각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사업에 관심을 기울였다.

시는 ▲김제시 기업 투자 인센티브 ▲기술사 임차지원 사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등 16개의 기업지원 사업과 ▲해외시장 개척사업(김제형 통상타터) ▲수출물류



김제시는 도내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과 함께 관내 중소기업의 지원사업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난 17일 기업지원시책 설명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비 지원사업 ▲글로벌시장 진출 토털 마케팅 지원사업 등 5개의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또, ▲고용안전전제대응 패키지사업, ▲취업박람회 등 15개의 김제시 인력 및 고용지원사업과 ▲전입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8개의 인구유입 지원사업 안내를 위한 안내서가 배포됐다.

김희옥 부시장은 “김제시는 기업이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기술사 임차료 지원사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산관협력력을 통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으로 난관을 극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2025년 농식품바우처 사업 본격 추진

3월부터 12월까지 지원...영양 섭취 수준 향상 및 건강 불균형 완화 기대

부안군은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영양보충 지원을 위해 2025년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2025년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지원되며 도내에 있는 지정된 사용처(로컬푸드 직매장 및 농협하나로마트, GS25, CU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7개 품목(국내산 채소, 과일, 흰 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 두부류)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신부·영유아·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이며 단 보장시설 수급자 및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농식품바우처 누리집), ARS 전화(1551-0857)로 하면 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4만원, 2인 가구 6만 50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매월 1일 자동으로 재충전돼 당월 말일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 시 소멸되며 3000원 미만 미사용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 섭취 수준 향상 및 건강 불균형을 완화하는 먹거리 복지 실현뿐만 아니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주요정책 ‘부패위험성 사전진단제’ 실시

특혜발생·부정수급 가능성 여부 등 검토...심 군수, “군민에게 신뢰받는 고창 유지 할 것”

고창군이 주요정책의 부패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요정책(사업) ‘부패위험성 사전진단제’를 실시한다.

부패위험성 사전진단제는 고창군의 주요정책 수립시, 특혜나 부정수급 등 부패위험요인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로 도입됐다.

업무 담당자들은 부군수 이상의 결재 시 신규 정책에 대해 부패위험성 사전검토 검토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정책(사업)의 ▲특혜발생 가능성 ▲부정수급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재정누수가능성 ▲적극행정여부 검토하게 된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공공기관 중합정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전북특자도 유일)’을 달성하며 명실상부 청렴 우수기관임을 입증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주요정책 부패위험성 사전진단제의 실시를 통해 군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부패유발요



인에 대해 한번 더 숙고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1등급 고창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예비 및 신혼부부 대상 무료 건강검진 지원

결혼 1개월 전 예비부부 및 3년 이내 신혼부부에 연 1회·최대 2회까지 제공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매년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예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진은 연 1회 및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검진 대상은 결혼 1개월 전 예비부부 및 법적 혼인상태가 3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다.

검사 항목은 혈액 검사, 간기능 검사, 고지혈증 검사, 심폐가염염병 검사 등

총 4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통해 예비부부와 신혼부부가 건강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등의 서류를 준비해 김제시보건소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특히, 이번 건강검진 지원은 결혼연령 상승과 고령 출산 증가에 따라 임신 전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의 건강을 보

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은 “건강한 출산을 위한 첫걸음은 건강한 부모로부터 시작된다”며, “예비부부와 신혼부부가 건강검진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보건소 문의(063-540-1341)하면 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순화사서 지원’ 사업 선정

9년 연속...전문인력지원,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등제공

김제시립도서관이 올해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도서관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작은도서관 순화사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 2017년부터 9년 연속 선정됐다.

“작은도서관 순화사서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작은도서관에 지역의 전문 운영인력을 지원해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김제시립도서관은 순화 사서 1명의 인건비, 방문활동비, 독서문화프로그램비 2천6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검산, 죽산, 길보 작은도서관 3곳을 방문해 도서 정리,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양질의 작은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올해 순화사서 지원을 받는 작은도서관 관계자는 “계속해서 순화사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돼 기쁘며, 시민들이 더욱 풍성한 독서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순화사서 사업에 선정된 기쁨을 표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우리동네 10분 거리 독서문화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의회, 지역 축제 활성화 방안 마련 나서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는 18일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작은축제 발굴 및 육성 정책 연구’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김제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축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서백현 의장과 최승선 대표의원을 비롯한 의원 8명 및 정책연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특화연구소 오영택 대표를 초빙해 연구 방향과 추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류 인구 증대 정책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 김제시의 지역 여건에 부

합하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고회에서는 김제시의 입지적 특성과 보유 자원 분석을 바탕으로 한 축제 프로그램 개발 방안, 축제 운영 전략 및 추진 로드맵 수립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이 논의됐다.

최승선 대표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관광형 생활 인구 증대를 목표로 하는 작은축제 발굴 연구는 김제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 계화면, 협심도진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 성료

권익현 부안군수, 면민 의견 적극 수렴 큰 호응

부안군 계화면(면장 김화순)은 19일 계화종합복지센터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와 박병대 부안군의회의 의장 및 부안군의원, 김정기·김술지 전북특별자치도의원, 관내 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협심도진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계화변영회(회장 김중호) 및 계화체육진흥회(회장 김정근)의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장학금 기탁과 이계화 원장마을 이장 및 계화바르게살기협의회(회장 황정덕)의 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로 시작됐

다.

권익현 군수는 ‘군민과 함께 더 큰 내일을 향해’라는 슬로건과 함께 2025년 군정 비전 및 운영 방향이 담긴 동영상상을 공유하고 군정에 대한 계화면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해 큰 호응을 얻었다.

권익현 군수는 행사 후 창북2경로당·계화4경로당·돈지2경로당 등 계화면 관내 경로당 3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행정을 이어갔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시 상시 지원

고창군이 지난 18일 고수면을 시작으로 관내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논·밭두렁에서 고춧대·잔가지 등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대신, 신청한 농가에 나가 파쇄기를 사용해 무료로 분쇄해 주는 사업이다. 자연순환 문화를 정착하고 불철 산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미세먼지

발생도 낮춘다.

상반기에는 신청을 접수한 43농가(총 27ha)에 대해 우선적으로 파쇄작업을 진행한다. 현재 고창군은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에서 파쇄기 총 23대를 보유하고 있다. 마을단위로 공동 파쇄작업을 진행할 경우 무료로 파쇄기 임대와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친절행정 서비스 실현 공직자 인성 및 친절 교육 실시

부안군은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친절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2024년 전화 및 방문 모니터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을 19일 부안군청 2층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됐다.

한국능률협회플러스 이지혁 대표 강사가 진행한 이날 교육에서는 2024년 친절도 모니터링 결과에서 나타난 부진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집중교육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였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공직자들의 친절마인드는 인성을 바탕으로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인성 및 친절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촉 및 회의 개최

고창군이 19일 고창군청 회의실에서 2025년 고창군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도서관 및 문화·교육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을 갖춘 11명의 운영위원이 위촉됐다. 위원들은 2년동안 고창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정책 심의·자문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1회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 ▲위원장 선출 ▲2025년 도서관 운영 계획 보고 및 도서관 발전을 위한 다각적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고창군의 대표도서관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고창황윤석도서관이 연말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 도서관은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종묘’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깊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디자인해 군민들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고창군은 도서관 공간별 특성에 맞는 디자인 가구 배치 및 자동화 기기 도입으로 디지털 기반의 미래형 독서문화를 선도하고 이용자 친화적 독서 환경을 조성해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지식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새로운 문화 공간을 선보일 계획이다.

나윤옥 고창군 문화예술과장은 “도서관은 이제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닌, 군민의 소통과 문화 향유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조력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전문 스포츠 성지 김제시, 전국 태권도팀 합동 전지훈련 성료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전문 스포츠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김제시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태권도팀 동계 합동 전지훈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훈련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태권도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참여해 실력 향상과 상호 교류의 기회를 가졌고,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이 돋보였다.

‘전국 태권도팀 동계 합동 전지훈련’에는 총 8개팀 200여 명의 선수가 방문했으며 이를 통해 김제시의 음식업, 숙박업 등의 수요 증가로 지역 골목상권에 활기가 돌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를 전지훈련지로 찾아준 모든 관계자 분께 감사의 전한다”며 “앞으로도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스포츠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에는 올해 동계 전지훈련에 야구, 배드민턴 등 총 3개 종목 27개 팀이 방문한 바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순창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시행 3년

청년 월 15만 원 저축 시 군 30만 원 지원…1기 참여자 5월 만기, 첫 수령 예정
올해 신규 200명 선정, 총 935명 청년 참여…경제적 자립·지역 정착 유도

순창군(군수 최영일)이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온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이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았다.

2023년 첫 발을 내딛은 이 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미래 설계를 돕는 순창군의 대표적인 청년지원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735명의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청년들이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군에서 그 두 배인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2년간 적립 시 청년들은 최소 1,080만원과 이자를 합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는 1기 참여자들이 5월 만기 지급을 앞두고 있어, 6월 이후 첫 종자통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이 줄어드는 가운데, 순창군은 군비로 지원사업을 지속 운영하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순창군이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면서 확보한 도비 2억 4천만 원은 사업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순창군이 청년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정책으로 추진해 온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이 시행 3년차를 맞았다.

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18세부터 49세까지로, 주민등록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청년이다. 또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7,072,000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는 새롭게 200명의 청년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들은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청년문화센터 1층 인

구정책과 청년정책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063-650-1562 또는 063-650-1587로 하면 된다.

한편, 순창군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종자통장 지원사업이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공동체공간 수작, 참발효어워즈 대상

완주 쌀로 빚은 ‘숨은골탁주’ ‘숨은골약주’, 맛과 전통성 등 호평

완주군 농업회사법인(주) 공동체공간 수작(대표 이진영)의 ‘숨은골탁주’와 ‘숨은골약주’가 참발효어워즈 2025에서 전통주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참발효어워즈는 국내 유일의 발효식품 전문 품평회로 ‘내일의 식탁’이 주최하고 참발효어워즈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후원하고 있다.

완주군에서 생산된 쌀을 활용해 빚어진 ‘숨은골탁주’와 ‘숨은골약주’는 자연 발효를 거쳐 깊은 풍부

한 풍미를 자랑한다. 뛰어난 맛과 함께 지역 농업과의 연계성, 환경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수상으로 공동체공간 수작은 ▲특별 기획전 초대 ▲유통 소매점 입점 지원 ▲발효 교육과정 운영 지원 ▲홍보 콘텐츠 및 매체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공동체공간 수작은 지난해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도 대상을 수상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찾아가는 현장민원’ 생활환경개선 집중 확대 운영

남원시는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120민원봉사대 ‘찾아가는 현장민원’을 이달 18일 수지면 내호곡, 유촌마을 시작으로 운영한다.

특히, 2025년 ‘찾아가는 현장민원’은 이동빨래방 차량 1대 추가 구입(총2대 운영)을 통한 확대 운영으로 위생·정결 취약가구 생활환경 개선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대비 2배의 마을을 선정 총 300개 마을을 직접 방문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보일러·농기계 점검 및 수리, 이동빨래방, 청소, 정신건강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봉사로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하려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120민원봉사대 확대 운영으로 올해도 시민중심·현장중심 봉사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취약계층세대의 일상생활불편으로 120민원봉사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대표번호(120)로 연락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 선정

지리산권 청년 1,400명 대상 자아탐색·구직활동 지원…남원형 킥스타트 연계

남원시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총사업비 1억 120만원)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15~45세 남원시 및 지리산권 청년 1,400명을 대상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부터 구직활동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성장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청년 친화적 인프라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경력(재)설계를 위한 ▲인생설계학교, 멘토링 프로그램 ▲네트워크 교류 ▲집단지성상담 ▲니트청년일상지원 ▲사회초년생 기본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프로그램 이수 후 민선8기 기업

연계형 취업 프로그램인 ‘남원형 킥스타트 사업’을 통해 취업을 앞선해 지속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남원 청년·창업센터 ‘청년마루’를 통해 오는 3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해 프로그램을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수소장학회 창립…수소에너지고·지역 공동체 등 참여

완주군 삼례읍과 수소에너지고등학교가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완주수소장학회 출범을 알리는 창립총회 행사를 개최했다. 19일 열린 창립총회 행사에는 삼례읍, 수소에너지고, 주민자치위원회 등 17개 단체 등 지역사회 공동체가 참여했다.

완주수소장학회는 수소에너지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지역에 정주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운영한다.

장학회에는 ▲삼례읍 이장협의회 ▲삼례읍 새마을부녀회 ▲삼례읍 주민자치위원회 ▲삼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삼례시협 ▲삼례도타리클럽 ▲느티나무 단체 ▲삼례생활안전협의회 ▲글로벌청년협동조합 ▲삼례노인복지센터 ▲한영테크 ▲(유)오케이이엔지 ▲그랜드호텔 ▲삼례중앙종묘농약사 ▲사전향중화요리 ▲한도령후여당 ▲삼례 풍천장이가 함께 한다.

총회에서는 안정적인 장학기금 확보



를 위해 방안을 논의하고, 수소인재 양성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공유했다.

또한, 장학사업 이외에도 교육활동 지원사업,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폭넓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유원옥 삼례읍장은 “수소에너지고 학생들의 학업을 응원하기 위해 장학회에 가까이 동참해 주신 기관사회 단체장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수소에너지고등학교 학생들이 뛰어난 인재로

거듭나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송현진 수소에너지고 교장은 “이번 완주수소장학회 출범을 통해서, 완주군 출신 학생 뿐만 아니라, 타지역 출신의 학생도 장학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이러한 거버넌스 협력에 힘입어 2025 협약형특성화고 공모에 반드시 선정돼 전국적인 지역 정주 성공 교육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로컬푸드 인증수수료 50% 인하…농가 부담 줄여

인증 농가, 잔류농약 분석수수료 무료…비인증 농가도 50% 할인

완주군이 올해 1월부터 완주로컬푸드 인증수수료를 8만 7,000원에서 4만 3,500원으로 50% 인하했다.

인증수수료는 완주로컬푸드 인증을 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완주군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완주군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인증을 사용하는 2년 동안 출하 전 단계에서 모든 작물에 대해 무료로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관내 농업인 중 완주로컬푸드 인

증을 받지 않고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기존 분석수수료의 50% 할인된 8만 7,000원이다.

최장혁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완주로컬푸드 인증 비용이 인하된 만큼 더 많은 농업인이 로컬푸드 인증에 참여하길 바란다”며 “인증을 받지 않은 농업인도 출하 전 잔류농약이 의심된다면 분석을 받고 안전한 농산물관리를 출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대한노인회, 노인 일자리 참여자 발대식 개최



(사)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지회장 김영기)가 19일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발대식을 열고, 완주군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통한 행복한 노년을 응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유익식 완주군의회 의장, 군의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서문 낭독, 인사발, 격려사, 안전사고예방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완주군노인회는 노인 일자리 사회

활동 지원사업으로 공익형(지역사회 환경개선사업, 경로당시설 지원사업, 만경강지킴이사업, 재활용품 수거사업, 취미활동 서포터즈사업,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사회서비스형(경로당급식 사업) 등 총 1,460명 7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 어르신들께서 더욱 다양한 일자리와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시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기 지회장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람을 느끼며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소방서,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지원 챌린지 동참

순창소방서(서장 이상일)가 19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유치를 지원하는 ‘GBCH’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GBCH’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대표 슬로건인 “Go Beyond, Create Harmony(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의 줄임말이다.

이번 챌린지는 순창소방서가 지역 사회와 함께 올림픽 유치를 위한 관심과 의지를 공유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가능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119안전센터부터 각 지역대까지 모든 부서가 릴레이로 참여해 올림픽 유치 응원에 동참했다.

2036 하계 올림픽이 전북자치도에서 개최될 경우, 수도권권을 제외한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스포츠, 관광 및 문화 산업의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서장은 “순창을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스포츠를 넘어 도전과 혁신의 미래 비전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드림스타트, 예비중학생 생활가이드 교육·책임방 지원

남원시 드림스타트에서는 지난 18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에서 올해 중학교에 진학하는 아동 21명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꿈을 응원해!’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원시 드림스타트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대상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12세 아동들은 사례관리 과정을 종결하고,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이번에 준비한 프로그램에서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아동들에게 초등학교와 달라지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슬기롭게 생활하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중학교 생활 가이드 교육을 실시했으며, 새 책가방도 지원해 양육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게 하는 등 새 출발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 무료 암 검진 사업 확대…난소암 검사 신규 포함

순창군이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암 조기 발견을 유도하기 위해 순창군민 무료검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 폐암, 전립선암 무료검진에 이어 올해 신규로 난소종양표지자 검사를 실시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 관한 무료 검진을 제공해 군민 모두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폐암은 국내에서 가장 높은 암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간 흡연자의 조기 검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폐암뿐만 아니라 남성 전립선암과 여성 난소암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시행할 계획이다.

검진 대상자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검진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전립선암 300명, 난소암 100명, 폐암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세부적인 검진 대상 기준은 순창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보건의료원 건강검진팀(063-650-5313)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검진은 올해 말까지 순창군보건의료

원에서 실시되며, 검진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지원된다. 다만,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추가적인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암은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검진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무료 검진을 통해 군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점검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MG 임실새마을금고, 임실군 이웃돕기성금 3백만 기탁

임실새마을금고(이사장 서명환)가 지난 19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임실군에 성금 3백만원을 기부했다.

임실새마을금고는 지난 가을 임실N치즈축제에서 직원 모두가 동참하여 머랭쿠키, 솜사탕, 참쌀요거트, 친환경 칫솔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의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의 협조로 사전 판매를 통해 수익금을 확보하였고, 많은 분들이 축제장에 참여하여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축제 참여와 성금 마련의 장을 마련했다.

서명환 이사장은 "많은 사람들의 협조로 조성된 성금이 화재 피해를 입은 가구를 비롯 15가구의 가정에 소중히 사용되길 바라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새마을금고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SGC에너지(주), 사랑의 1004운동 참여... 후원금 3백만 기탁

군산지역 대표 친환경 에너지 기업인 SGC에너지(주)는 지난 19일 사단법인 예사봉사단에 후원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SGC에너지(주)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 활동으로 마련되었으며, 주변 지역의 소외계층과 어르신들의 무료급식에 사용될 예정이다.

SGC에너지(주) 박준영 부회장은 "매년 우리 군산지역의 소외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온정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랑의 1004운동은 SGC에너지(주) 주변 지역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 전원이 자율적으로 신청한 구좌(구좌당 1,004원) 수 만큼 모금한 후원금과 이에 상응한 회사 지원금(Matching Grant)으로 후원·봉사 활동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써 군산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공헌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초록우산 전북, 가족돌봄 청년 1천5백만 전달

가족돌봄 청소년 6명... 학습비·주거비·의료비·주거비 등 최대 3백만 원 지원

전북자치도는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구미희, 이하 초록우산)가 도내 가족돌봄 청소년들에게 총 1천500만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아픈 가족을 돌보며 학습과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의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청소년 6명으로, 이들에게 최대 3백만원이 학습비, 돌봄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19일 도내 가족돌봄 청소년들에게 총 1천 500만원을 지원했다.

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지원된 다. 초록우산은 지난해 11월, 전북

도, 청년미래센터, 사회복지 기관 등 10개 기관과 협력하여 신취업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구미희 본부장은 "초록우산은 2022년부터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이슈를 지역사회에 알리며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기관들과 연대해 가족돌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익산시의사회, 사랑의 장학금 1,350만 원 쾌척

고등학생 19명·대학생 4명 등 23명 전달...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 주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

익산시의사회(장학위원장 이태훈)는 ㈜익산시자원봉사센터 장학위원회와 함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사랑의 장학금 1,350만 원을 전달했다.

익산시의사회는 지난 18일 저녁 보건소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강영석 부시장과 정성환 익산시교육지원청장, 김민선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장을 비롯해 의사회 회원, 학부보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장학금은 지역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고등학생 19명(각 50만 원), 대

학생 4명(각 100만 원) 등 23명에게 전달됐다.

이태훈 장학위원장은 "장학금을 받는 여러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의 인재로 건강하게 성장해 주길 바란다"며 "의사회 회원들과 함께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의사회는 2007년 장학회를 설립하고 지역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해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의사회는 ㈜익산시자원봉사센터 장학위원회와 함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사랑의 장학금 1,350만 원을 전달했다.



서해환경이웃사랑회, 저소득층 새내기 노트북 지원

서해환경이웃사랑회(대표 박성윤)이 군산시 저소득 가정 중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6명을 위해 노트북 6대(1,000만원 상당)를 군산시에 전달했다.

지난 19일 기탁식에 참석한 박성윤 대표는 "희망찬 새 출발을 하는 대학생들에게 이번 나눔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더 넓은 세상에서 열정과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서해환경이웃사랑회의가 새내기 대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위해 베풀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서해환경이웃사랑회는 다양한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적극 앞장을 서고 있으며, 연말연시 나눔 캠페인, 수해 피해지원 등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삼오기술사 박종근 대표, 장학금 500만 기탁

정읍시 연지동 소재 삼오기술사 박종근 대표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박 대표는 지난 18일 정읍시민장학재단(이사장 이학수)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금은 최근 빙모상을 통해 받은 따뜻한 위로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자 마련됐다.

박 대표는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학생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 발

전을 위해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박 대표의 나눔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3년 첫 장학금 기탁을 시작으로 정읍시 학생들을 위한 꾸준한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기탁 금액은 2200만 원에 달한다. 또한 ▲이웃돕기성금 기탁 ▲'솜씨가 바른 기업'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사회에 온정을 전하고 있다.

/정읍=김정민 기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김제시 노인 보행보조기 12대 기탁

김제시 만경읍 행정복지센터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김홍석)가 지난 19일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행보조기 12대(15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만경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폐농약병 및 농약 봉지를 판매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로 마련됐다.

이날 새마을지도자 회원들은 각 세대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고 보행보조기를 전달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홍석 회장은 "거동이 불편해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부녀 만경읍장은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주는 만경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받은 보행보조기는 꼭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성송면 엄동마을·판정마을 노인회장, 경로당 150만 전달

고창군 성송면의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엄동마을 노인회장(김귀현), 판정마을 노인회장(정재목)이 지난 18일 성송경로당을 방문해 15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두 노인회장은 지난해에도 경로당 운영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김귀현 노인회장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경로당이 더욱 활기차고 따뜻한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정재목 노인회장 역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편히 쉬고 소통할 수 있는 경로당이 잘 운영되길 바라며, 함께 즐겁고 건강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주)이엔솔루션, 무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3백만 원 기탁

(주)이엔솔루션 김병희 대표가 지난 19일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3백만 원을 무주군에 전달했다.

(주)이엔솔루션은 무주읍에 위치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업체로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총 9백만 원)를 이어오고 있다. 또 '22년에는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2백만 원을, '21년도에는 무주어린이집과 안성만나지역아동센터에 각 5백만 원 상당의 태양광 설비를 무상으로 지원한 바 있다.

김병희 대표는 "고향 발전에 마음을 보탬이 있어 흐뭇하다"라며 "환경을 생각하는 업체라는 자부심으로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생활속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



① 온(溫)몹시 착용하기



② 에어컨을 활용하여 에너지 손실 줄이기



③ 카펫보다 전열기 사용하기



④ 실내온도 18°C~20°C로 유지하기

〈一事一言〉



조사 연구하지 않은 자, 발언하지 말라(2)

유시민
작가

비평도 비평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평론가는 자신이 한 비평에 대해 '직적 책임'을 져야 한다. 나는 평론가로서 다른 평론가들이 내 비평을 정확하고 매섭게 비평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한 것처럼, 실제로 한 것과 다른 말을 한 것처럼 왜곡 비평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과 다투기 싫어서 못 척하지만 누가 어떻게 내 주장을 왜곡하는지 잘 안다. 내가 했던 민주당 비평의 요지를 다시 말하겠다. 내 비평을 비평하는 정치인과 평론가와 기자들은 읽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비평을 통해 내 견해를 알게 되는 독자들을 위해 분명하게 정리하겠다.

“조사 연구하지 않은 자는 발언하지 말라.” 마오쩌둥이 한 말이다. 공산당 말을 인용한다고 타박하지 말라. 공산당도 이 정도는 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인용했다. 누군가를 비판하려면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있는 그대로 알아보는 게 기본이다. 기본조차 하지 않는 기자를 저널리스트라 할 수는 없다. 그런 평론가를 평론가라 할 수도 없다. 그런 정치인을 정치인이라 하기는 싫다. 정신 차리기 바란다. 공산당만도 못해서야 되겠는가.

요즘 나는 정치인을 만나지 않는다.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정당이 관련되어 있는 행사 초대나 강연 요청은 모두 거절한다. 사람을 상대로 취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근거로

삼아 비평한다. 이른바 조국사태 때는 그렇지 않았다. 사람을 상대로 적극 취재했다. 그런데 전화로 사실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어떤 총장과 어떤 교수가 내가 하지 않은 말을 지어내 모함했다. 증거로 사실을 밝힐 수 없는 일이라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일을 겪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재를 그만두었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생각이다.

나는 소위 '친노'다. 노무현 정부의 장관이었고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다. 참여정부 인사들을 대부분 안다. 인간적으로 친밀하다. 나는 또 '친문'이다. 정치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정부에 몸담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했고 지금도 존경한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두루 안다. 나는 '친명'이다. 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국정을 잘 이끌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니다. 하지만 그가 확고한 민주주의자이고 유능한 행정가이며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가졌다고 본다. 누가 이재명의 측근인지는 모른다. 소위 '친명' 정치인·비평가와 교류하지 않는다.

개인적 친분을 뺏으면 객관적으로 비평하기 어렵다. 평론가로서 공사를 구분하려면 사적인 교류를 삼가는 게 바람직하다. '친노'든 '친문'이든 '친명'이든, 나는 정치를 하던 시기에 인연을 맺었던 정치인들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함께 정치를 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미 마음에서 떠나보낸 이가 적지 않다. 지난해 총선에서 떠나보낸 이도 많다. 다가올 대선에서 또 그래야 할 것 같다. 어쩔 수 없다. 그들과의 인간관계보다 글 쓰는 일이 내겐 더 중요하다. 그들 없이는 살 수 있지만 글을 쓰지 않고는 살지 못한다.

최근 민주당 상황을 보면 일종의 기시감을 느낀다. 2002년이 생각난다. 노무현을 적대하는 언론이 노무현을 공격하는 민주당 정치인을 띄웠다. 그러나 민주당 당원과 시민들은 언론의 공작에 넘어가지 않고 노무현을 선택했다. 2024년 총선도 떠오른다. 언론은 '친명월세 비명횡사'라는 주문을 외면서 이재명을 공격했다. 표본이 오염된 여론조사 결과를 퍼뜨리면서 민주당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단정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을 흔들고 '반명' 정치인들을 변호했다. 그러나 민주당원과 시민들은 그들을 남김없이 정치무대에서 끌어내렸다. 자신이 속한 정당의 대표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아귀에 넘겨준 배신행위를 용서하지 않은 것이다.

거듭 말한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내놓고 입에 올리거나 은근히 부각시키는 민주당 정치인은 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다. 민주당 당원들은 윤석열의 검찰 사유화와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승인하는 정치인을 용납하지 않는다. 법에, 칼에, 계엄령에, 세 번이나 죽을 뻔했던 당의 대표에게 정권교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

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승인하지 않는다. 당의 주권자가 당원이라는 원칙을 공공연하게 부정하는 정치인을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란세력과 민주세력 사이에서 중립을 취하는 방식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으려는 정치인한테 국정 운영 권한을 맡기지 않는다.

민주당의 대표가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상황이 동일하다면 나는 같은 진단을 내릴 것이다. 내 주장이, 내 전망이, 내 판단이 옳다는 증거는 없다. 나는 그저 내 생각을 말할 따름이다. 나는 말과 글 말고는 가진 무기가 없다. 내 말과 글에 공감하는 사람이 적으면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최소한 일리는 있는 견해를 말해야 평론가로서 존재할 자격을 얻는다. 나는 내가 아작은, 사람들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일에 대해 생각하도록 북돋우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믿음을 잃으면 '정치적 목적'의 글쓰기를 스스로 그만두려고 한다.〈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만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민주당의 감세정책과 우클릭을 우려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종합 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어 상속세 완화에까지 추진하면서 감세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고소득층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러나 감세정책이 가져올 세수 감소는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서 민주당의 감세정책은 특정 계층의 이익을 우선한 선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상속세 완화 방안 역시 부유층을 위한 감세 정책에 불과하다. 상속세 납부 대상은 전체 가구의 6.3%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상위 1%가 전체 상속세 부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를 두고 '중산층 부담 완화'라는 주장을 펴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가깝다. 상속세 부담이 큰 부동산 가격 상승도 일부 수도권에 집중된 현상일 뿐, 지방에서는 상속세 감면의 효과가 미미하다. 이번 개편안은 결국 수도권 부유층을 위한 정책으로, 지방과는 무관한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가 지방 교부세 축소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지방세 수입이 부족한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축소는 지방 경제의 기반을 뒤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에 자본과 인구가 집중되고 지방은 일자리 부족과 인구 유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교부세 감소는 지

방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 지방 경제는 그야말로 존폐 기로에 놓여 있다. 민주당의 감세정책이 지방 지원 축소 선언과 다를 바 없는 이유다.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공정한 과세와 재원의 재분배다. 경제적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감세 경쟁은 단기적인 표심을 얻기 위한 위험한 선택일 뿐이다. 민주당은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조세 정의와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단기적인 선거 전략에 휘둘러 지방을 희생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정권 교체에 위한 감세경쟁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누구를 위한 정권 교체인가, 무엇을 위한 정권 교체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민주당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균형발전과 조세 정의를 외면한 채 수도권과 특정 계층의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이다.

민주당은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조세 정책을 통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방 경제를 살리는 길은 증세를 통한 균형발전이다.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다. 민주당은 감세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문화재열전



불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유물, 불교조각, 목조
-지정일- 2002년 8월 2일
-시대- 조선시대
-소재지- 군산시 나포면 군둔길 226

▲오늘의시

시간은 누구의 편인가 / 박노해

막막한 길을 걸을 때나
시련의 날을 지날 때나
나는 나에게 묻는다
'시간은 누구의 편인가'

나는 알고 있다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함평 출생. 16세에 상경해 선린상고를 졸업했다. 1983년 '시와 경제'에 '시의 꿈'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4

갈수록 시간이 희망인 사람과
갈수록 시간이 쇠망인 사람들
내가 진실하고 사랑이라면

그래, 시간은 나의 편이니
나에게는 나만의 때가 있으니

년 시집 '노동의 새벽'을 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1백만부 이상 팔려 밀리언 셀러가 됐다. 1991년 안기부에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겨울 속에
이미 봄은 오고 있고
내 안에 품은 꽃눈이 트고 있고

내 앞에 희망의 날은 하루하루
서로 마주 걸어오고 있으니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8년 DJ 정부때 특별사면으로 7년6개월 만에 출소했다. 옥중 에세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등 다수의 작품을 출간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윤관우) 549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정읍지국 010-2800-2934	정읍지국 010-5312-7293
송전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오늘의 뉴-스

JBT 전북타임스 신문!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3 신문구독 282-9600

남원시, 소중한 생명 지키기 위해 두팔 걷어부친다



자살예방의날 캠페인



마음안심버스 운영



생명존중교육

매일 평균 36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특히 청소년과 노년층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

남원시 자살 사망률은 지난 2023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31.1명으로 전국 27.3명, 전북 25.6명보다 높아 자살 예방 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불명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선제적 예방 활동과 체계적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가 지역 특성에 맞춘 예방 프로그램과 상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올해 남원시보건소와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음을 붙, 생명을 붙'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전반을 살피본다.

/편집자주

- ◆ 남원시 자살 사망률 전국·전북보다 높아 자살 예방 사업의 필요성 절실
- ◆ 자살 고위험시기 계절성장애(SAD) 막기 위한 「마음의 햇살」 추진
-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 직장인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 생명존중안심마를 지정 · 어린이~100세 어르신까지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SAD) 및 증가하는 자살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 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인식 개선 캠페인』을 다방면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일환에서 남원시는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읍면동 주민 1,100명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상담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던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마음안심버스』를 올해도 추진, 자살 예방과 심리적 회복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남원시청과 의료원에 『무인 정신건강 검진기』를 설치해 상시 자가검사를 지원하고 필요시 전문 상담과 치료비 지원을 연계해 정신건강 접근성을 강화하는 중이다.

▶ 당신의 마음을 들어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뿐만 아니라, 남원시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통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민의 마음을 돌봄 및 자살 예방·정신질환 조기 발견 등 지역 주민의 마음 소리를 듣고 치료까지 연계하는 사업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상자에게는 총 8회의 상담 바우처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후 바우처 카드를 통한 본인부담금 결제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1급 유형은 회당 8만 원(최대 총 640천원)의 상담 비용이 지원되며, 2급 유형은 회당 7만 원(최대 총 560천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금은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신청을 원하는 모든 시민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은 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및 접수하면 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정신건강 증진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직장인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직장인 및 공무원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증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직장인들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진단하고 맞춤형 심리 치료를 통해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서비스로 구성, 검사는 '옴니핏 마인드케어' 기기와 검사지를 활용해 약 15분 동안 진행된다. 스트레스 및 우울증 상태를 진단한다.

검사 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의 상담이 제공, 심층 상담을 통하여 필요시에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심리치료비 지원까지 연계, 이뤄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심리지원이 가능하다.

게다가 심리 치유 프로그램의 경우 '옴니핏 브레인 트레이닝' 기기를 활용하여 약 20분 동안 집중력 강화 및 두뇌

이완을 돕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는 남원시 직장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063-625-4122)로 예약 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생명존중안심마를 지정으로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환경 조성

한편 남원시는 지역사회 내 자원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생명존중안심마를 조성으로 자살 예방에 나르고 있다.

이와 관련,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명존중안심마』은 올해도 이어져, 읍면동 단위의 자살 예방 활동 강화를 목표로 선정된 7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7개 면·동(송동면, 금지면, 대강면, 사매면, 보절면, 산내면, 향동동) 이들 마을에서는 보건의료, 교육, 복지,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등 6개 주요 분야 총 53개 기관이 협력, 고위험군 발굴·개입·연계 등 5개 활동을 펼친다.

이와 함께, 마을별 주민 우울증 선별 검사를 실시, 고위험군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고, 전문가 상담 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및 치료비 지원까지 연계하여 마을 중심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범사회적 자살예방체계까지 구축, 위기관리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 취학 전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이밖에도 남원시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생명 존중에 대해 바람직한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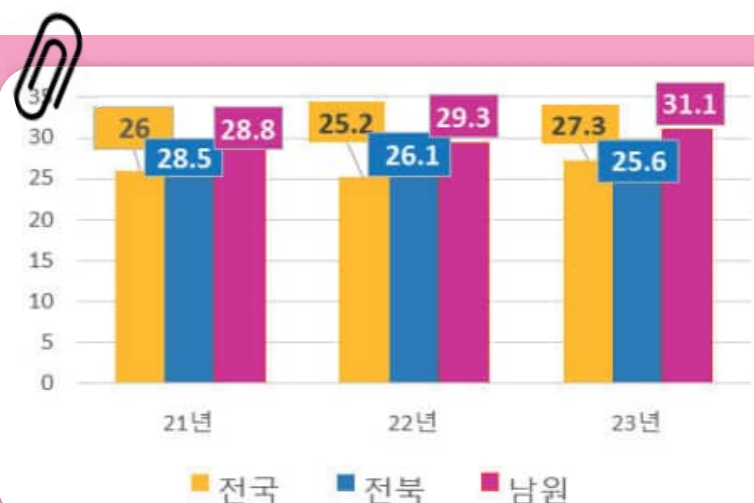
이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남원교육지원청 Wee센터 등과 연계해 정신건강 학교 클린스쿨을 운영하고 자해 청소년의 자해 행동 감소를 위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심리 안정 키트 배포와 더불어 학생 대상 자해 선별 척도 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임산부를 대상으로는 산전·후 우울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울증 검사를 통해 적극적인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울 고위험군 노인을 대상으로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 연계, 자살예방 100세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남원시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는 올 한 해도 지역 특성과 대상별 심리지원 서비스 강화 등 자살률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지자체의 핵심 책무인 만큼, 앞으로도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모든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지역별	2021년	2022년	2023년
전국	26.0	25.2	27.3
전북	28.5	26.1	25.6
남원	28.8	29.3	31.1

▶ 자살 고위험시기 계절성장애(SAD)를 막기 위한 「마음의 햇살」 추진

자살 예방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일 때 더욱 효과적이다.

그런데도, 연말연시와 초봄 등 사회적 고립감이 심화되고 일조량 감소로 계절성 정서 장애(SAD)가 악화되는 시기에 자살 충동이 높아짐에 따라 남원시는 자살 고위험시기 「계절성 장애



노인 건강 100세

